

구약개론(2)

안태환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구약의 구조

| 역사서(17) | 시가서(5) | 예언서(17) |
|--|-----------------------------|--|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
|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이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 포로 이후) | |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바벨론 포로 이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 이후) |

2. 시가서(詩歌書)의 특징

유대교 성경을 지칭하는 ‘타나크(תנ"ך Tanakh)’는 기독교의 구약성경에 해당한다. ‘타나크’는 ‘토라(תורה Torah, 율법서)’, ‘네비임(נביאים Nevi'im-선지서)’, ‘케투빔(כתובים Ketuvim-성문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분의 맨 앞 글자를 따서 약칭으로 ‘타나크(תנ"ך)’라고 부른다. 유대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만들 때 연대기 순서나 저자의 순서에 따라 히브리 성경을 재배열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족장시대에 쓰여진 욥기가 가장 앞에 나온다. 그리고 다윗이 시가 포함된 시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1)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구약성경의 문학 형식을 보통 두 가지, “이야기(내러티브)와 시”로 구분한다. 성경의 1/3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나 시적 표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구약성경의 책들은 레위기, 룻기, 에스라, 학개, 말라기 등 다섯 권에 불과하다. 모세오경이 포함된 역사서는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가서는 주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욥기도 1,2장과 마지막 장 외에는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2) 세 가지 형태가 있다.

- (1) 서정시 - 시를 노래로 부른 형태 (대부분의 시편).
- (2) 교훈시 - 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삶에 관한 원리들을 가르친다(잠언, 전도서).
- (3) 극시 - 시적 형태로 된 대화(욥기, 애가).

3) 대구법(Parallelism 또는 평행법)이 많이 사용된다.

히브리 시의 문학 양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구법(평행법)이다. 대구법은 다른 말로 하면 ‘반복법’이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구성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법은 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시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동의 대구법(Synonymous Parallelism)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개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

(시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반의 대구법(Antithetic Parallelism)

두 개의 시구가 대조를 이룬다.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내용을 강화시킨다.

(잠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3) 종합적 대구법(Synthetic Parallelism)

두 번째 시구가 첫 번째를 보완, 완성하지만 정확한 대칭은 아니다.

(시 1: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4)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시가서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다르다. 율법서와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 성공(복)과 실패(저주) 이야기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 기록한다. 또한 시가서는 예언서들처럼 미래(심판)에 대해 예언하지도 않는다. 시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한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절망과 고통을 겪으면서 시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던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을 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3) 각 책의 주제

① 율기

| 프롤로그 | 시 | 에필로그 |
|---------------------|---|--------------|
| 1-2장 천상회의와 욥의 환난 | 3-37장 욥과 세 친구들, 엘리후 38-41장 하나님의 말씀 | 42장 욥의 회복 |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종류의 환난을 포함하는 혹독한 시련에 휩싸이게 된다. 욥은 그에게 닥친 불행들이 죄 때문에 초래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그의 친구들과 세 번에 걸친 논쟁을 펼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 가운데 자신을 욥에게 드러내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며 회개하는 욥을 회복시키신다.

② 시편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저작 연대가 모세 당시로부터 시작해 포로 시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들은(예가, 감사, 찬양, 즉위, 순례 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성전에서 사용된 찬송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적합했다. 시편에는 곡이 붙여져 있었으며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 시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며 율법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한다. 2편은 누가 참된 왕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편의 결론은 146-150편에 나와 있다. 146-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 시편 초반

에는 탄식시가 많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찬양시가 많아진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메시아를 참된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시편은 인간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① 시편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차 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쁨, 슬픔, 탄식, 감사와 같은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②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눅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고 그 안에 율법서와 선지서 뿐 아니라 시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행2:30-31a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시16:9-10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위에 앉을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 예언했다고 증거한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16편에서 다윗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